2024-04-25
주식전략 이은택 02 -6114 -2958
et.lee@kbfg.com
연구원 이다은 02-6114-2869
de-lee@kbf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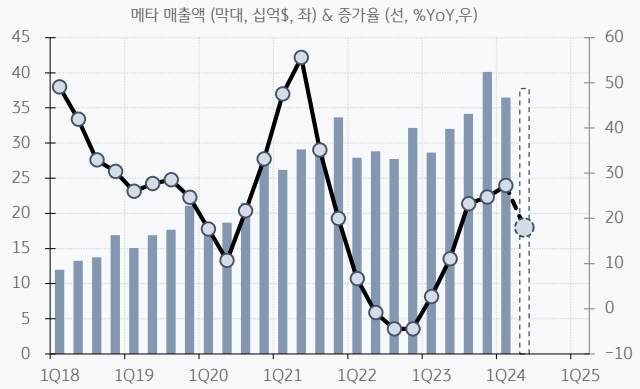
‘메타’의 질문 : 왜 ‘AI’는 ‘생산성 혁명’을 만들지 못하고 있나?

‘메타’가 불러일으킨 의심: AI는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나?

‘메타’는 좋은 실적에도 시간 외 거래에서 급락했다. 주요 원인은 ① ‘AI 투자’ 전망을 높였음에도 (올해 350~400억 달러), ② 매출 가이던스 (365~390억 달러)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AI 투자’는 왜 ‘매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일까?

메타 매출액과 증가율: 2분기엔 증가율이 꺾이는 것으로 가이던스 제시



자료: REFINITIV, KB증권

‘기술’이 ‘생산성’으로 이어지기까진 과정이 필요하다

‘범용기술 (GPT)’이 ‘하위발명’으로 연결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기술’ 자체는 ‘생산성 (매출)’을 만들지 못한다. 시간이 지나서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생산성’으로 연결되는지” 깨닫는 사람이 나타날 때, 비로소 ‘산업혁명 (생산성/매출 증가)’이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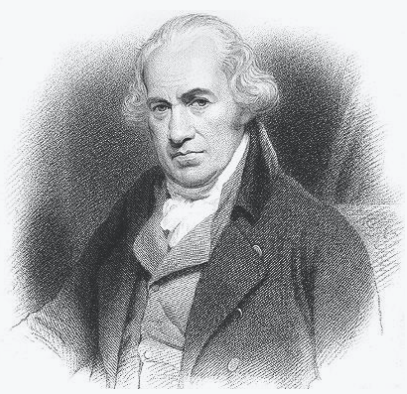
예를 들어 ‘제임스 와트 (1차 산업혁명)’가 증기기관을 만들기 40~50년 전에 이미 증기력은 발명되어 있었고, ‘에디슨 (2차 산업혁명)’이 전기제품을 만들기 20~30년 전에 전기는 발명되었으며, ‘스티브 잡스 (3차 산업혁명)’가 스마트폰을 만들기 10~20년 전에 인터넷은 존재했다.

지금 10~20대들 중에 ‘AI’혁명을 깨달을 천재가 어딘가엔 있을 것

‘과학’ 입장에서 보면, 앞에 열거한 사람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남의 기술을 탈취해 큰 돈을 번 ‘악덕 자본가’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제’ 입장에선 이들이 ‘진짜 영웅’이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범용기술’이 ‘하위발명 (생산성)’으로 연결될지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AI’는 ‘이메일 쓰기’ 정도에 사용되었던 ‘1990년대 인터넷’ 같은 느낌이다. AI의 주요 역할이 ‘문서요약/번역’일리 없다. 그리고 그 방법을 깨닫는 사람이 미래에 나타날 것이다. 그 전까진 ‘인프라 투자 기업들’만 돈을 벌 것이다. 1990년대 통신사, 케이블, PC/핸드폰 부품업체들처럼. 하나 더 덧붙이자면,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생산성이 물가를 낮추는’ 기적은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1차 산업혁명 ‘증기력‘
제임스 와트 (1736~1819)



2차 산업혁명 ‘전기 '
토마스 에디슨 (1847~1931)

3차 산업혁명 ‘모바일 인터넷 '
스티브 잡스 (1955~2011)

1. 메타는 ‘AI 투자 지출’을 늘리면서도 ‘매출 가이던스’는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제시했다. AI는 왜 생산성 (매출)을 만들지 못하는 것일까?
2. ‘기술’이 ‘생산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기술을 산업에 접목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나타나야 한다
3. 이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아울러 일부 전문가들이 말하는 ‘AI 생산성 향상으로 물가가 낮아지는’ 기적도 당분간은 나타나기 어렵다

투자자 고지사항

-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KB증권